

## 중년여성의 신체지각과 이상적 연령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주재은 · 정찬진 · 정명선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 Effects of Perceived Body Type and Ideal Age on Satisfaction with Fit of Ready-to-Wear among Middle-aged Woman

Jae-Eun Ju, Chan-Jean Jung and Myung-Sun J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and perceived body type and body cathexis on satisfaction with fit and 2)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difference between chronological and ideal age of middle-aged woman on satisfaction with fit of ready-to-wear.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500 middle-aged woman in Kwangju. Employing 402 respondent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chi^2$ -tes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tual and perceived body types among middle-aged women. Those who were inconsistent with actual and perceived body types had a tendency to perceive themselves to be obaser than actual body. 2) Those who were inconsistent with actual and perceived body types had a lower satisfaction level with apparel fit sites at jacket length, hip width, crotch length and waist width than those who were consistent with actual and perceived body types. 3) Correlation for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ready-to-wear was significantly positive.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ronological and ideal ages. 5) Those who were inconsistent with chronological and ideal ages had a lower satisfaction level with apparel fit sites at neckline, shoulder width, bust, sleeve length, sleeve width, jacket length, waist width, hip width and skirt length than those who were consistent with chronological and ideal ages.

*Key words: perceived body type(신체지각), Ideal age(이상적 연령), satisfaction with fit(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 I. 서론

기성복 만족은 구매 후 실제 제품성능과 기대되었던 제품성능간의 차이로부터 기인되며, 주로 제품성능이 기대 제품성능을 능가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내리는 긍정적 평가이다. 의복의 제품성능은 기성복 만족의 예측요인로서 의복의 본질적·비본질적 속성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의복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스타일, 색상, 소재, 브랜드명,

관리용이성, 맞춤새, 품질 등이 해당된다.

의복의 제품성능 가운데 맞춤새는 의복이 자신의 신체치수에 적합한 정도로서, 의복구입 후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능 중의 한가지이다. 의복속성 및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델을 제시한 Eckman, Damhorst & Kadolph (1990)는 점포 착의실에서 의복을 입어보는 단계에서 최소한 맞춤새가 만족되어야 최종적으로 구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Shim & Bickle (1993)은 몸에 잘 맞는 의복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

적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하여 기성복 맞춤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연구자들(Goldsberry, Shim & Reich, 1994; Hwang & Norton, 1994; Hogge, Baer & Kang-Park, 1988; Shim & Bickle, 1993)은 노년층의 기성복 맞춤새에 주목하였다. 노년층은 맞춤새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는 노년층의 연령증가와 함께 체형변화 때문에 의복선택의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기성복 맞춤새에 대한 기대와 실제 성능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경험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나 Labat & DeLong(1990)의 경우 소비자는 의복이 맞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의복 때문이라기보다 체형 때문인 것으로 지각할 지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성복의 맞춤새 불만족은 의복성능에 대한 평가보다 신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신체적 특성은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Kaiser(1990)는 신체적 자아는 신체에 대한 개인의 느낌이며 이는 의복스타일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신체적 자아를 구성하는 실제적 신체적 자아와 이상적 신체적 자아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 의복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체유형이나 신체에 대한 지각은 의복의 맞춤새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신체적 변화를 수반하는 연령 변화는 젊은 시절에 추구하는 신체적 매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의복을 통해 신체적 매력을 재인식하면서 의복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arak & Shchiffman(1981)은 대부분의 나이든 소비자는 그들의 실제연령보다 자신을 더 젊게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 감정, 인지는 그들의 실제연령보다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과 더 관련있다고 하였다. 심리적 연령 가운데 특히 이상적 연령은 자아개념의 한 측면으로(Barak, Stern & Gould, 1988),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의 차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령 차이에 대한 지각은 기성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신체 및 연령변화에 따른 신체지각과 심리적 연령이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였다. 특히 중년기 여성은 인생의 전환기로서 노년기가 가깝다는 불

안감을 가지는 시기로 그들은 신체, 생리, 심리, 사회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신체지각과 심리적 연령이 기성복 맞춤새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의 한 측면인 신체지각이나 이상적 연령이 기성복 맞춤새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첫째 실제 신체유형과 신체지각과의 차이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를 알아보고, 둘째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연령과 이상적 연령과의 차이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체적 특징과 기성복 만족도

#### 1) 신체유형과 기성복 만족도

신체유형은 환경, 유전, 문화적 이상형, 유행 그리고 식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자신의 신체유형은 대부분 그 시대의 신체적 이상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이상적 신체형은 날씬한 체형이며(Lennon, 1997), 몸에 꼭 맞는 의복이나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드러나는 매우 건강해 보이는 신체(이연희, 1996)라고 한다. 여성들에게 있어 날씬함은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하나의 속성이며(Freedman, 1986), 이에 맞게 개인의 신체적 매력이 추구된다. 이 때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 신체유형과 자신의 신체유형과 비슷하다고 지각할 때 긍정적 신체자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유형은 이상적 신체유형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체를 왜곡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Kefgen & Touchie-Spech(1976)은 신체에 대한 의식은 극히 개인적인 인식으로, 실제 연구에서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를 정확하게 갖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였다. Kaiser(1990, p.103)는 그동안 연구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 크기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검토되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체형을 사회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신체유형과 비교하여 자신

의 신체유형에 대해서 왜곡되게 인식하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정옥임(1993)은 여대생과 여고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체형 즉 인지체형과 실제체형을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인지체형과 실제체형에는 서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년기 경우에는 연령증가로 신체 치수와 비례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변화하는 체형에 민감해지면서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이기 쉽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은 실제 자신의 신체유형과 다르게 자신의 신체를 지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중년여성의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하는 신체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의복의 제품성능 중 맞춤새는 자신의 신체치수에 적합하여 활동하기 편하면서 신체에 자연스럽게 맞는 정도로서 의복구입 후에도 만족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의복성능이다. Shim & Bickle(1993)은 몸에 잘 맞는 의복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하여 기성복 맞춤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연구자들(김희영, 1998; 남윤자·유희숙, 1996; Goldsberry, Shim & Reich, 1994; Hogge, Baer & Kang-Park, 1988; Labat & DeLong, 1990; Shim & Bickle, 1993; Hwang & Norton, 1994)은 기성복 만족도와 관련하여 맞춤새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노년층은 기성복 사이즈, 맞춤새에 대해 불만족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성복 맞춤새 불만족에 대해 Labat & DeLong(1990)은 그 원인을 의복 자체의 성능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의 체형을 주관적으로 지각한 결과일지 모른다고 하였다. 그들은 의복의 맞춤새와 외모에 대한 만족감은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서 시작되고 의복에 의해 조정된다고 하여 신체만족도와 의복의 맞춤새와의 정적관계를 검증하였다.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① 복부와 엉덩이의 팽창, ② 허리선의 굽어짐, ③ 몸무게 증가, ④ 신장의 축소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심리적으로는 텅 빈 보금자리 증후군(empty-nest syndrome)으로 불리는 심리적 불안과 허전함으로 인해 자기보상을 추구하는 내부적, 외부적 충족감을 구가하는 시기로

(장휘숙, 1996), 젊음에 부여되는 높은 사회적 가치에 의해 신체 치수와 비례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외모나 신체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들은 신체적 변화에 따라 자신의 실제적 신체적 자아와 이상적 신체적 자아 사이의 모순으로 인하여 부정적 자아를 갖고 결국 그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기성복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중년여성의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이 일치하지 않은 집단은 일치하는 집단보다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 2) 신체만족과 기성복 만족도

신체만족(Body Cathexis)은 신체의 여러 부분과 신체의 기능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 자아를 구성하는 신체이미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다. Kwon & Paraham(1994)는 신체만족도를 신체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이라고 하였고, Labat & DeLong(1990)은 신체이미지의 평가적 차원으로서, 개인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이라고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의복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Shim, Kotsiopoulos & Knoll(1991)은 신체만족/불만족은 의복으로 옮겨져서 자아존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복은 신체불만족을 보상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won & Shim(1999)는 여성의 경우 신체의 몸무게가 변화할 때 자아존중 또한 변화한다고 하였다. 노년층 남녀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과의 관계를 연구한 황진숙(2000)의 연구에서는 남녀 노년층에게 있어 신체만족도는 대부분의 의복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존중 또한 남녀 모두에게 있어 대부분의 의복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신체 만족과 불만족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체와 동일시되는 의복과도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연구자들은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성복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황진숙(1997)과 Hwang & Norton(1994)은 남녀노년층을 대상으로, Labat & DeLong(1990)은 19~40세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만족과 기성복 만족간의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중년여성의 신체변화로 인한 심리적 변화는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년층 여성의 신체 만족도와 기성복 맞춤새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중년여성의 신체만족도는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 2. 이상적 연령과 기성복 만족도

연령에 대한 연구관심은 사람들이 생활연령을 실제 어떻게 지각하는지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나이든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적 연령보다 젊게 지각한다는 것이다(Kastenbaum et al, 1972; Barak, Stern & Gould, 1988). Montepare & Lachman(1989)의 경우는 성인의 주관적/이상적 연령은 실제 연령보다 더 젊게 지각되며, 실제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불일치 정도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중년기를 기점으로 대부분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연령을 지각하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훨씬 크다고 하였다. Barak, Stern & Gould (1988)의 경우, 다양한 심리적 연령 가운데, 이상적 연령은 자아개념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 중 하나라고 하였다. 특히 연령에 민감한 제품인 패션의류에 있어서 이상적 연령은 마케터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적 연령은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중년기는 실제연령과 심리적 연령과의 불일치를 극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중년여성의 실제연령과 이상적 연령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중년여성의 실제 연령보다 이상적 연령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Barak & Gould, 1985; Barak & Shchiffman, 1980)은 대부분의 나이든 소비자는 그들의 실제연령보다 자신을 더 젊게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 감정, 인지는 그들의 실제연령보다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과 더 관련있다고 주장하였다. Robert (1992)는 스스로를 젊게 지각하는 사람은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적이며, 어떤 행사에서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이은아·김미숙(2000)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연령은 실제연령보다 심리적 상태나 행동에 더 영향을 주며 소비자의 선택이나 구매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개인의 기능 및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들은 10대 청소년부터 50대까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주관적 연령집단에 따른 의복 구매기준과 점포선택과 같은 의복구매행동을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 실제연령대별로 주관적 연령집단 간의 의복구매기준의 고려정도는 10대를 제외하고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정찬진·박재욱(1996)은 55세 이상의 노년층 여성을 자신을 젊게 인지하는 집단과 젊게 인지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 쇼핑성향과 점포속성 평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인지적으로 젊게 생각하는 노년층 여성은 젊게 생각하지 않은 노년층 여성보다 즐거움 추구의 쇼핑성향과 계획적 쇼핑성향이 높고, 점포속성 중요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의 실제 연령과 실제연령이 아닌 주관적 연령과는 차이가 있고, 심리적 연령에 따라 쇼핑성향이나 구매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년기는 노년기로 접어드는 과도기로서, 자신의 실제 연령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연령을 지각하는 불일치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기성복 맞춤새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실제 연령과 이상적 연령과의 일치하지 않은 집단은 일치하는 집단보다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아개념의 측면인 신체 및 이상적 연령과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하였다. 중년기의 연령구분은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0대 후반에 폐경이 일어나는 시기로 40대를 중년 전기, 50대를 중년 후기로 구분하고 있어 40~50대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00년 5월 한 달 동안 실시되었으며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32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402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설문지는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신체만족도, 실제연령, 이상적 연령, 실제 신체유형, 지각된 신체유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성복 맞춤새는 중년여성들이 많이 구매하는 블라우스, 자켓, 바지, 스커트, 원피스로 구분하여 각 아이টে별로 목둘레, 어깨부분, 가슴둘레, 소매길이, 소매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 바지길이, 스커트길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신체만족도는 기성복 착용에 있어서 신체에 적합되는 부위 목, 어깨, 가슴, 팔 길이, 팔 둘레, 배,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다리길이, 체중, 신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상적 연령을 측정하기 위해 Barak, Stern과 Gould(1988)가 제시한 측정용 토대로 '가능하다면 귀하는 나이가 몇 대이고 싶습니까?'의 질문에 20대 전반에서 50대 후반까지 5세 간격으로 8단계로 나누어 이에 응답하게 하였다.

신체유형에 있어서 실제 신체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키와 몸무게로부터 신체충실지수(Rohrer Index = W(몸무게) / L(키)<sup>2</sup> × 105)를 사용하여 체형을 구분하였다. 신체충실지수가 1.2이하인 경우는 마른 체형, 1.2~1.5는 표준체형, 1.5이상인 경우는 뚱뚱한 체형으로 구분하였다. 지각된 신체유형은 마른 체형에서 뚱뚱한 체형까지 5단계 범위로 구분하여 본인이 지각하는 체형의 정도를 답하게 하고 이를 마른

체형, 표준체형, 뚱뚱한 체형 3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를 이용하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chi^2$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고 Pearson Correlation을 산출하였다.

**3. 응답자의 특성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전체 402명 가운데 40대가 52.5%(N=211), 50대는 47.5%(N=191)였고, 최종학력은 중학교 이하가 17.4%(N=70), 고등학교가 60.7%(N=244), 대졸 이상이 21.9%(N=88)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에 있어서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34.8%(N=140), 그리고 가정주부가 65.2%(N=26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광주에 거주하는 중년여성을 편의적으로 추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다.

**IV. 결과 및 논의**

**1. 신체지각과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1)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과의 차이**

중년여성의 실제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chi^2$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중년여성의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chi^2=52.816, p<.001$ ), 가설 1이 채택되었다. 이는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신체유형과 이상적 신체유형이 일치하는 집단은 전체의 54.48

<표 1>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간의 차이

실제 신체유형 \ 지각된 신체유형	마른형	표준형	비만형	합 계
마른형	9	7	0	16
표준형	31	181	59	271
비만형	0	86	29	115
합 계	40	274	88	402

$\chi^2 = 52.816$  \*\*\* (df=4).

&lt;표 2&gt;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의 일치 집단과 비일치집단 간의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집단구분	Mean	S. D	t-value
목둘레	일치집단	3.442	.947	.814
	비일치집단	3.366	.937	
어깨넓이	일치집단	3.334	.938	1.837
	비일치집단	3.153	1.028	
가슴둘레	일치집단	3.200	1.194	1.351
	비일치집단	3.038	1.210	
팔 길이	일치집단	3.105	1.175	1.772
	비일치집단	2.905	1.082	
팔 둘레	일치집단	3.363	.930	1.897
	비일치집단	3.187	.923	
상의길이	일치집단	3.262	1.123	2.484*
	비일치집단	2.991	1.054	
허리 둘레	일치집단	3.260	1.023	2.597**
	비일치집단	2.983	1.096	
엉덩이 둘레	일치집단	3.251	.959	2.451*
	비일치집단	2.990	1.072	
팔위 길이	일치집단	2.995	1.261	2.277*
	비일치집단	2.704	1.284	
바지 길이	일치집단	2.698	1.465	1.316
	비일치집단	2.513	1.350	
스커트 길이	일치집단	3.143	1.155	1.436
	비일치집단	2.983	1.077	

\* p&lt;.05, \*\* p&lt;.01.

% (N=219)였으며 일치하지 않은 집단은 45.52 % (N=183)으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은 집단 내에서 실제 표준적인 신체유형임에도 자신이 비만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N=8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Kefgen & Touchie-Spech (1971)의 연구결과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실제적인 자아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자아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Kaiser(1990)의 주장을 지지하

는 것이다. 이는 중년여성의 경우,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키 크고 마른 이상적 체형과 자신의 체형과 거리가 더욱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 2) 신체지각과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중년여성의 실제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이 일치하는 집단(N=219)과 일치하지 않은 집단(N=183) 간에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기성복 맞음새는 아이템별 측정하여 평균값을 근거로 비교한 것으로 목둘레, 어깨넓이, 가슴둘레, 팔 길이, 팔 둘레, 바지길이, 스커트길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상의길이( $t = 2.484, p < .05$ ), 허리둘레( $t = 2.597, p < .01$ ), 엉덩이둘레( $t = 2.451, p < .05$ ), 밑위길이( $t = 2.277,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채택한 결과로, 신체유형에 대한 지각이 기성복 맞음새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이 일치하지 않은 집단( $M_2$ )은 일치하는 집단( $M_1$ )보다 상의길이( $M_1 = 3.262, M_2 = 2.991$ ), 허리둘레( $M_1 = 3.260, M_2 = 2.983$ ), 엉덩이둘레( $M_1 = 3.251, M_2 = 2.990$ ), 밑위길이( $M_1 = 2.995, M_2 = 2.704$ )에 있어서 만족도가 더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의 차이에 따라 기성복 맞음새 만족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신체만족과 의복태도와의 긍정적 자아일치 상황에서 기성복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Shim, Kotsipoulos & Knoll(1991)의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이는 실제 신체유형과 주관적 신체유형에 있어서 차이를 지각하는 중년여성은 기성복 맞음새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불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맞음새 만족도

중년여성의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맞음새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중년여성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해 만족하면 기성복 맞음새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부위와 그 신체부위에 해당되는 기성복 부위와의 관계(그림자 부분)에 있어서,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맞음새 만족도 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신체의 팔길이와 기성복의 팔 길이와의 관계( $r = .375$ ), 엉덩이둘레와 기성복의 엉덩이 둘레와의 관계( $r = .339$ ), 신체의 목과 기성복의 목둘레와의 관계( $r = .301$ )의 순서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체 만족도와 의복의 맞음새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Labat & Delong

(1990), 황진숙(1997), Hwang & Norton (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은 자아존중감을 높게 하고 이는 기성복에 대한 맞음새 만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은 긍정적 자아를 갖게 하며 결국은 자신의 확장물인 의복에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3. 이상적 연령과 기성복 만족도

### 1) 실제 연령과 이상적 연령의 차이

중년여성의 실제 연령과 이상적 연령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chi^2$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중년여성은 실제 연령과 이상적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를 있는 것으로( $\chi^2 = 154.261, p < .001$ ),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실제 연령과 이상적 연령이 일치한 집단은 15.4% ( $N = 62$ ), 이상적 연령을 실제연령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집단은 4.5% ( $N = 18$ ) 그리고 더 짧게 생각하는 집단은 80.1% ( $N = 322$ )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 대부분이 실제연령보다 더 젊어지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50대 전반이면서 20대 전반이기를 희망하여 무려 30세를 더 젊어지고 싶어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나이든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연령보다 더 젊은 나이를 이상적으로 여긴다는 Barak, Stern & Gould(1988)의 연구결과와 Montepare & Lachman(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중년기는 노인기로 접어들면서 나이의 증가에 대한 심리적 위기감이 강하게 반영되어 실제 연령과 이상적 연령의 불일치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실제연령보다 젊은 모습의 자아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 2) 이상적 연령에 따른 기성복 맞음새 만족도

중년여성의 실제 연령과 이상적 연령과 일치하는 집단( $N = 62$ )과 일치하지 않은 집단 가운데 젊기를 희망하는 집단( $N = 322$ )으로 구분하여 기성복 맞음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기성복 맞음새 만족도에 있어서 밑위길이와 바지길이

&lt;표 3&gt;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와 관계

신체부위 기성복 부위	목	어깨	가슴	팔길이	팔둘레	배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다리 길이	체중	신장
목둘레	.301**	.124*	.141**	.147**	.091	.093	.138**	.142**	.174**	.151**	.165**
어깨넓이	.284**	.217**	.120*	.242**	.127*	.118*	.172**	.151**	.132**	.113*	.139**
가슴둘레	.178**	.150**	.229**	.095	.186**	.104*	.159**	.162**	.088	.116*	.053
팔 길이	.240**	.162**	.142**	.375**	.208**	.152**	.135**	.149**	.191**	.061	.252**
팔 둘레	.260**	.192**	.210**	.240**	.213**	.159**	.182**	.153**	.191**	.170**	.250**
상의길이	.305**	.174**	.143**	.279**	.244**	.190**	.200**	.213**	.225**	.238**	.275**
허리둘레	.220**	.184**	.219**	.106*	.191**	.228**	.282**	.269**	.138**	.178**	.119*
엉덩이둘레	.229**	.079	.233**	.101*	.166**	.205**	.246**	.339**	.136**	.240**	.162**
밑위길이	.211**	.140**	.108*	.205**	.133**	.130**	.180**	.159**	.224**	.142**	.207**
바지길이	.173**	.092	-.009	.192**	.091	.115*	.156**	.181**	.267**	.152**	.290**
스커트길이	.238**	.118*	.155**	.163**	.122*	.170**	.198**	.196**	.216**	.169**	.215**

\* p&lt;.05, \*\* p&lt;.01.

&lt;표 4&gt; 실제 연령대와 이상적 연령대의 차이

실제연령 \ 이상연령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전반	40대 후반	50대 전반	50대 후반	합계
40대 전반	16	19	51	51	26	11	0	0	174
40대 후반	4	2	10	5	6	6	3	0	36
50대 전반	3	6	23	23	47	23	23	4	152
50대 후반	0	0	3	2	4	11	13	7	40
합계	23	27	87	81	83	51	39	11	402

 $\chi^2 = 154.261***$  (df=2)

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가설 5를 지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목둘레( $t = 3.233$ ,  $p < .001$ ), 어깨넓이( $t = 2.601$ ,  $p < .01$ ), 가슴둘레( $t = 2.659$ ,  $p < .01$ ), 팔 길이( $t = 2.418$ ,  $p < .05$ ), 팔둘레( $t = 2.730$ ,  $p < .01$ ), 상의길이( $t = 2.878$ ,  $p < .01$ ), 허

리둘레( $t = 2.560$ ,  $p < .05$ ), 엉덩이 둘레( $t = 2.267$ ,  $p < .01$ ), 스커트길이( $t = 2.267$ ,  $p < .05$ )에 있어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성복 부위별로 실제 연령과 이상적 연령과 일치하는 집단과 젊기를 회귀하는 집단의 맞춤새 만족도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젊기를



&lt;표 5&gt; 실제 연령대와 이상적 연령대가 일치하는 집단과 일치하지 않은 집단간의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집단구분	Mean	S. D	T-value
목둘레	일치집단	3.718	.970	3.233***
	비일치집단	3.330	.920	
어깨넓이	일치집단	3.516	1.029	2.601**
	비일치집단	3.186	.962	
가슴둘레	일치집단	3.450	1.221	2.659**
	비일치집단	3.046	1.187	
팔 길이	일치집단	3.287	1.235	2.418*
	비일치집단	2.946	1.102	
팔 둘레	일치집단	3.537	.931	2.730**
	비일치집단	3.220	.920	
상의길이	일치집단	3.462	1.132	2.878**
	비일치집단	3.059	1.077	
허리둘레	일치집단	3.400	1.030	2.560*
	비일치집단	3.068	1.064	
영덩이 둘레	일치집단	3.425	.983	2.267**
	비일치집단	3.060	1.016	
밀위길이	일치집단	2.837	1.354	-.192
	비일치집단	2.869	1.261	
바지길이	일치집단	2.825	1.465	1.449
	비일치집단	2.562	1.400	
스커트 길이	일치집단	3.312	1.047	2.267*
	비일치집단	3.010	1.133	

\* p&lt;.05, \*\* p&lt;.01, \*\*\* p&lt;.001.

회귀하는 집단은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연령과 이상적 연령과 일치하는 중년여성은 일치하지 않은 집단보다 기성복 맞춤새에 대해 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보다 젊어지기를 희망하는 중년 여성은 실제 연령과 이상적 연령의 불일치를 지각함에 따라 기성복 맞춤새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연령과 이상적 연령이 일치하

는 중년여성은 삶에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에 여유를 가지게 되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므로 기성복 선택시 맞춤새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 실제연령과 이상적 연령과 불일치하는 집단은 심리적 괴리감으로 인해서 기성복 맞춤새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팔길이를 제외한 밀위길이, 바지길이, 스커트 길이는 맞춤새 만족도에 있어서 집단간 영향력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여성의 체형은

길이항목이 둘레항목보다 변화가 덜 두드러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에는 가슴둘레는 좀 작아지고 배와 엉덩이는 비대해지며, 허리선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어깨는 등글어진다는 주장(문명옥·임희경, 2000; 이영운·강혜원, 1982)처럼, 밑위길이, 바지길이, 스커트 길이와 같은 길이항목이 둘레항목보다 변화가 덜 나타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중년기 여성은 인생의 전환기로서 노년기가 가깝다는 불안감을 가지는 시기로 그들은 신체, 생리, 심리, 사회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체형변화는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는 날씬한 체형에서 멀어진다는 위기감을 갖게 하고, 그들은 낮아진 신체적 매력을 보완하기 위해 의복과 외모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된다. 중년기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성복에 대한 만족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성복 만족은 의복성능에 대한 평가보다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더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의 한 측면인 신체지각이나 이상적 연령이 기성복 맞춤새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신체유형과 신체지각과의 차이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그리고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또한 실제연령과 이상적 연령과의 차이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의 실제신체유형과 지각하는 신체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이 일치하지 않은 집단 내에서 실제 표준 신체유형임에도 자신이 비만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둘째, 실제 신체유형과 지각된 신체유형이 일치하지 않은 집단은 일치하는 집단에 비해 기성복의 상

의길이, 엉덩이 둘레, 밑위길이, 허리둘레 부위의 만족도가 낮았다.

셋째, 중년여성의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중년여성의 실제연령과 이상적 연령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실제연령보다 더 젊어지기를 회구하는 중년여성은 조사응답자의 80.1%로 나타났다.

다섯째, 실제 연령과 이상적 연령과 차이가 일치하지 않은 집단 가운데 젊기를 희망하는 집단은 기성복의 목둘레, 어깨넓이, 가슴둘레, 팔 길이, 팔 둘레, 상의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 맞춤새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았다.

이로부터 중년여성의 연령이나 신체와 관련된 자아개념은 기성복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신체적 자아와 바람직하다고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적 자아 사이에 불일치는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하고 자아의 확장물인 의복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령의 증가와 신체변화에 따른 자신의 긍정적 자아는 기성복에 대해 만족하지만 부정적 자아는 기성복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것으로, 소비자의 기성복 만족은 긍정적 자아가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는 의복이 신체적 자아의 확장물로서,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자아가 기성복 만족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일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패션기업은 중년여성들의 신체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비자는 의복이 체형에 맞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의복사이즈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의 체형 때문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자아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즉, 중년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마케팅관리자는 중년여성들의 실제 체형과 연령이 아닌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신체유형과 이상적 연령에 맞추어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희영(1998). 노년 남성의 의복착용 실태조사-체형

- 변화와 기성복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2), 193-202.
2. 남윤자, 유희숙(1996). 노인계층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1) -노년여성의 연령 및 체형별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만족도-. *한국의류학회지*, 20(6), 962-974.
  3. 문명옥, 임희경(2000). 중년여성 상반신의 유형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4(3), 301-312.
  4. 이연희(1996).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이영윤, 강혜원(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17-24.
  6. 이은아, 김미숙(2000). 주관적 연령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8), 1254-1265.
  7. 장희숙(1996). *여성심리학*. 학지사.
  8. 정옥임(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 체형과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53-162.
  9. 정찬진, 박재옥(1996). 노년층 소비자의 인지연령에 따른 쇼핑성향과 의류집포속성 중요도. *한국의류학회지*, 20(1), 28-42.
  10. 황진숙 (1997). 남녀노년층의 자아존중과 기성복 만족도에 대한 신체만족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1(8), 1417-1426.
  11. 황진숙 (2000). 노년층 남녀의 의복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와 자아 존중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4(8), 1187-1196.
  12. Barak, B. & Gould, S. J.(1985). Alternatives age measures: A research agenda.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2, 53-58.
  13. Barak, B. & Schiffman, L. G.(1981). Cognitive age : A nonchronological age variabl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8, 602-606.
  14. Barak, B. & Stern, B. B. & Gould, S. J.(1988). Ideal age concept : An explora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5, 146-152.
  15. Baum, S. K. & Boxley, R. L.(1983). Age identification in the elderly. *Gerontologist*, 23, 532-537.
  16. Eckman, M., Damborst, M. L. & Kadolph, S. J.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ng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3-22.
  17. Freedman, R. J.(1986). *Beauty bound*,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18. Goldsberry, E., Shim, S., & Reich, N. (1996). Women 55years and older: Part II. Overal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2), 121-132.
  19. Hogge, V. E., Baer, M. & Kang-Park, J.(1988). Clothing for elderly and nonelderly men: A comparison of preferences, perceived availability and fitting problem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4), 47-53.
  20. Hwang, J. & Norton, M.(1994). Body cathexis, self-esteem, and clothing of men and women ages 55 years and older. *ITAA Proceedings*, 98.
  21. Kaiser, S. B.(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 : Macmillan.
  22. Kastenbaum, R., Derbin, V., Sabatini, P. & Artt, S. (1972). The ages of me : Toward Personal and Interpersonal definitions of functional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s*, 3, 197-212.
  23. Kefgen, M. & Touchie-Specht, P.(197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24. Kwon, Y. H. & Parham, E. S.(1994). Effects of state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4), 16-21.
  25. Kwon, Y. H. & Shim, S.(1999). A structural model for weight satisfaction, self-consciousness and women' use of clothing in mood enhancemen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203-212.
  26. LaBat, K. L. & DeLong, M. R.(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990, 43-48.
  27. Lennon, S. J.(1997)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60-64.
  28. Montepare, J. M. & Lachman, M. E.(1989). You're only as old as you feel : Self-perceptions of age, fears of aging, and life satisfaction from adolescence to old age. *Psychology and Aging*, 4, 73-78.
  29. Robert, E. W.(1992).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measurement and meaning of cognitive A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294-300.
  30. Shim, S. & Bickle, M. C.(1993). Women 55 years and older as catalog shoppers : Satisfaction with apparel fit and catalog attribut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4), 53-64
  31. Shim, S., Kotsiopoulos, A. & Knoll, D. S.(1991).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35-44.